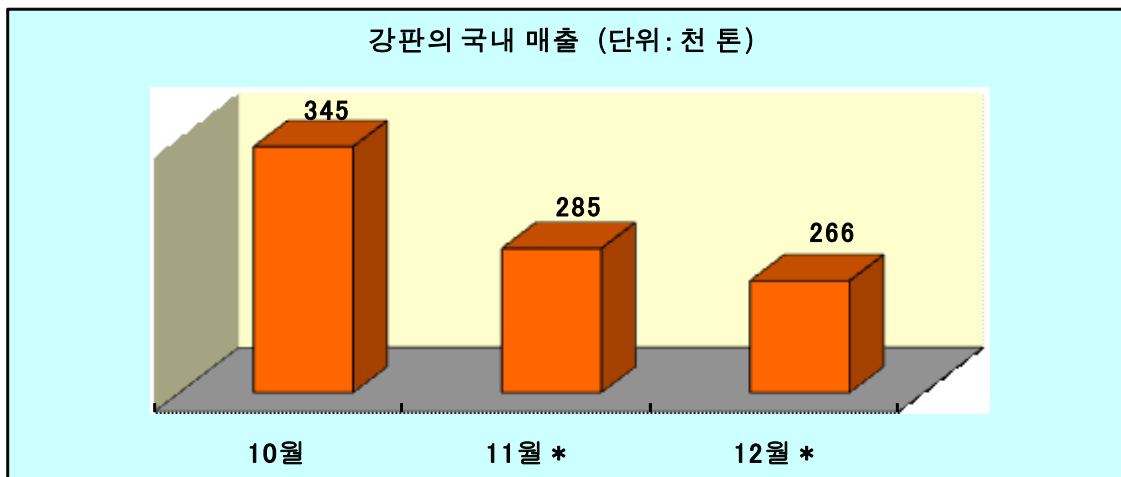


브라질, 광산업 및 제철업 최근 동향

- Ibram(브라질 광물원)에서는 2012년까지 계획되고 있던 광산업 분야의 570억 달러 투자는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
 - 해외 수출비중이 큰 브라질 광산업계는 세계경제 침체가 장기화 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계획하였던 신규 광산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를 연기해야만 할 상황
- 브라질 광산업계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중국과 같은 대규모 광산품 구매국들의 향후 움직임으로,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다소 둔화해도 향후에도 7~8%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고, 중국 이외의 미국, 일본, EU도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정부지원을 약속하고 있어 그나마 브라질 광산업계가 안도하는 분위기임
 - 브라질 광산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, 이미 광산품의 시장가격은 5월 19일 이래 2/3가 하락하였으며 향후 6개월은 광산업계에서 향후 흐름을 판별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로 공산품의 국제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중소규모 광산업계의 인수합병이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예상
- 한편, 세계적 광산기업인 브라질 Vale사도 지금까지 세계적인 강재수요로 인해 지속적인 가격인상을 반복하여 왔으며 올해 9월에도 12%의 추가 가격인상을 각국에 통고하였으나
 - 국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세계의 철강수요가 급속히 감소, 국제시세도 하락하고 있어 추가 가격인상을 단념하였으며, 향후에도 세계 대규모 철강기업이 생산 감소를 단행하게 되면, 새로운 가격의 재검토를 피할 수 없게 될 가능성

□ 브라질 철강업계 또한, 자동차공업과 건설업계의 경기 냉각으로 철강수요가 격감할 것으로 전망

- 브라질 철강업계는 광산업과는 달리 국내시장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바, 국내 자동차 산업의 수요침체로 매출이 10월부터 11월에 걸쳐 약 20% 가까이 축소하고 있는 실정
- Inda(전국 강철 배급센터)는 2009년 1/4분기에는 추가로 30%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자동차 판매의 냉각은 금융위기로 발단한 대출금의 급격한 축소에 의한 것으로, 기업들은 일제히 생산량을 하향 조정중
- 건설업계도 마찬가지로 부동산금융의 고갈이 수개월전까지 건설 러쉬에 있던 업계가 건축을 중지하고 있어 이러한 업계의 변화로 인해 국내의 철강판매도 축소경향



출처: 전국철강판매협회* 예상

<상파울루 사무소 제공>